

“인조잔디 추억 쌓고...팬 없으면 없는대로”



축구국가대표팀이 7일 파주 NFC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10일 화성에서 스리랑카, 15일 평양에서 북한과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3차전을 잇달아 치른다. 파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현대차, 대표팀 공식 파트너십 연장

현대자동차는 7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축구트레이닝센터(NFC)에서 이광국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파울로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및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현대자동차는 1999년부터 대한축구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인연을 이어왔다. 현대자동차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선수들의 대표팀 소집 시 파주NFC 입소 장면, 경기 전 인터뷰 등의 대표팀 관련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파트너로서 지원과 활동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과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자축구, 미국과 2차전 1-1 무승부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 위치한 솔저필드에서 열린 미국 대표팀과의 평가전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 34분 문전에서 손화연이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지소연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트리며 앞서나갔다.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득점한 것은 2017년 10월 한재린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러나 득점 이후 3분 만에 미국의 칼리 로이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한국은 이후 미국의 공세에 시달렸지만 추가 실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4일 샬럿에서 열린 1차전에서 0-2로 패했던 한국은 미국 원정 평가전을 1무1패로 마쳤다.

이재성, 레겐스부르크전 풀타임 소화

이재성(울산HD)은 7일 독일 쾰른의 홈구장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 2(2부리그) 9라운드 레겐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팀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은 그는 날카로운 패스로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울산HD는 1-2로 패했다. 이재성은 시즌 5패(2승2무)째를 당하면서 승점 8을 기록, 리그 16위에 자리했다.

뉴캐슬 기성용, 맨유전 엔트리 제외

기성용의 소속팀인 뉴캐슬은 7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파크에서 벌어진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0으로 승리했다. 기성용은 결장했다. 뉴캐슬은 9월 30일 레스터시티전에서 이삭 하이든이 퇴장을 당했다. 하이든은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 기성용의 출전이 예상됐지만, 아예 출전선수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모두 북한전만 신경...한편으로 걱정 인조잔디구장 언제 또 경험해보겠나 일방적 응원...경기 하나만 바라볼 것”



손흥민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7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했다. 스리랑카가 약체로 손꼽히지만 투르크 원정에서 드러났듯 쉬운 승리를 장담해주는 상대는 없다. 강호들이 언제든지 털미를 잡힐 수 있는 이번의 스포츠가 축구다. 한국은 만만치 않은 경쟁을 펼쳐야 한다. 손흥민은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주장이 느끼는 무게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지켜왔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가 월드컵에

가 북한전만 신경 쓰고 있어 한편으로 더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다. “스리랑카전이 우선”이라는 벤투 감독의 생각과 궤를 함께 하는 현명한 답이다.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으로 향하는 1년여의 긴 여정, 벤투호의 상대가 북한만은 아니다. 스리랑카가 약체로 손꼽히지만 투르크 원정에서 드러났듯 쉬운 승리를 장담해주는 상대는 없다. 강호들이 언제든지 털미를 잡힐 수 있는 이번의 스포츠가 축구다. 한국은 만만치 않은 경쟁을 펼쳐야 한다. 손흥민은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주장이 느끼는 무게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지켜왔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가 월드컵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걸려있다.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표현에서는 비장함이 느껴졌다. 그래도 10월 A매치 시리즈를 향한 스포트라이트의 대부분이 북한 원정에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전 세계 미디어가 남북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이용해 북한에선 경기 관전이 포함된 별도 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그만큼 부담이 대단하다. 더욱이 현지 사정은 최악에 가깝다. 김일성경기장은 인조잔디로 그라운드를 조성했다. 바닥이 딱딱하고 쉽게 미끄러진다. 잘못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응급처치 역시 믿을 수 없다. 태극전사들은 인조잔디를 아주 오래 전 경험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SV 유소년 시절이 마지막이다. “축구는 어디든지 부상 위험이 있다. 언제(인조잔디) 경험을 해보겠다.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싶다”고 짐짓 여유를 보였으나 큰 변수입에 틀림없다. 압도적인 원정 분위기도 걱정스럽다. 10만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전을 극복해야 한다. 침대축구와 레이저 광선 등 중동 원정에서 종종 경험한 빗세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북한은 대표팀 공식응원단 붉은악마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이미 “(응원단 방문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축구의 성지이자 그들 입장에서 신성한 이름인 ‘김일성’의 명칭을 딴 장소라 “대~한민국”의 함성은 부담스럽다. 그래도 손흥민은 의연하다. “팬이 없는 상황은 타격이지만 응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 경기를 위해 평양으로 향한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경기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며 힘주어 말했다.

파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벤투호의 황태자’ 남태희가 돌아왔다. 파울루 벤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표정도 밝아졌다. 벤투 감독이 7일 파주 NFC에서 남태희의 활용 방안을 밝히고 있다. 파주 | 김민성 기자

‘황태자’ 남태희, 벤투 사랑에 보답할까

벤투 “아시아컵 결장 지금도 아쉬워” 돌아온 남태희 “기회 안 놓칠 것”

축구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은 공개석상에서 특정 선수에 대한 언급을 즐기지 않는다. 그래도 모든 감정을 숨기는 건 아니다. 간간히 애정 어린 표현을 한다. 남태희(28·알 사드SC)가 대표적이다. 스리랑카(10일·화성)~북한(15일·평양)으로 이어질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2·3차전을 앞둔 7일 경

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태극전사들을 소집한 벤투 감독은 ‘남태희 복귀’를 문자 표정이 밝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그는 남태희를 무한 신뢰했다. ‘벤투호 황태자’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사제가 함께 한 시간은 짧았다. 올해 1월 아시안컵을 앞둔 시점에 무를 십자인대 파열로 대표팀을 떠났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던 남태희의 걱정과 달리, 벤투 감독은 회복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제자를 합류시켰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

능력을 잊지 않았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 프리 톨까지 줄 수 있다. 대표팀에 많은 걸 가져다줄 것”이라는 설명에 “아시안컵에 함께 가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쉽다”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더했다. 공격 2선의 경쟁은 치열해도 제 몫을 하면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승의 사랑에 선수의 의지도 활활 타오른다. 올림픽과 아시안컵을 두루 경험했으나 월드컵과는 유독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익숙한 카타르에서 펼쳐질 다음 월드컵은 충분히 욕심을 낼 만 하다. 남태희는 “카타르월드컵은 꼭 가고 싶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패스, 득점 등 공격에서 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먹을 쥐어 보였다. 파주 | 남정현 기자

박장순 레슬링대표팀 총감독 자진 사퇴

세계선수권 ‘노 메달’ 부담 작용 “후배들 자극 받아 새 출발 하길”

레슬링 국가대표팀 박장순 총감독(51)이 지휘봉을 내려놨다. 복수의 레슬링 관계자는 7일 “박장순 감독이 대표팀에서 물러난다. 대한레슬링협회에 최근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감독도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사퇴를 결심했고, 의지를 전달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후배들이 (내 사퇴를 통해) 자극을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2019 세계레슬링연맹(UWW) 세계선수권대회에 ‘총감독’ 자격으로 나선 박 감독은 대표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은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질 이번 대회에서 노 메달 수모를 겪었



박장순 총감독

다. ‘레슬링 투 톱’ 김현우(31)와 류한수(31·이상 삼성생명)도 각각 남자 그레코로만형 77kg급과 67kg급에서 조기 탈락했다. 2012년런던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2013년과 2017년 세계선수권 정상에 선 세계랭킹 1위 김현우는 무함마드 게라이(이란)와 16강전을 통과하지 못했고, 랭킹 2위 류한수도 8강을 넘지 못했다. 세계선수권은 체급별 상위 6명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하나 한국 레슬링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은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기점으로 각종 국제

무대에서 석연찮은 판정 불운을 겪어왔다. 김현우-류한수를 비롯한 레슬링 대표팀은 생사를 넘나드는 ‘사정 훈련’을 비롯해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심신을 다졌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레슬링 대표팀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향후 3차례 예정된 별도 쿼터대회를 노려야 한다. 올림픽 2회(2008년 베이징·2016년 리우), 아시안게임 2회(2010년 광저우·2014년 인천)를 사령탑으로 나선 1992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 감독은 “대표팀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남정현 기자